

無齒醫村 住民의 口腔保健管理 實態 調査 研究*

國立醫療院 齒科

朴 光 振

EVALUATION ON THE KNOWLEDGE AND CONTROL METHOD OF THE DENTAL HEALTH IN RURAL RESIDENTS

Kwang J. Park, D. D. S., Ph. D.

Dental Department of National Medical Center

.....> Abstract <.....

The author surveyed and evaluated the knowledge and control method of the dental health in the 338 Korean rural residents by interview.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evaluation were as follows;

1. Residents, who knew the total number of the deciduous teeth in their life, was 6.80%, but the more residents in the younger age groups than in the older age groups knew the number comparatively.
2. Residents, who knew the total number of the permanent teeth in their life, were 23.96%, but the more residents in the older age groups than in the younger age groups knew the number comparatively.
3. Persons experienced toothache were 67.16% of the interviewed residents.
4. Persons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were 78.85% of persons experienced toothache, and lesser in the younger age groups comparatively.
5. Quack dentists treated 27.93% of persons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in the Korean rural areas.
6. Persons immediately consumed the dental care except emergency dental cares, which recommended by the dentist, were 46.51% of persons treated by the dentists.
7. 11.59% of the rural residents, whom the whole dental treatment recommended by the dentists were not given to, had the limitation on time, 27.54% no identified need, 59.42% economic limitation, and 1.45% geographical limitation, as the reason they were not treated immediately.

* 본 연구는 국립의료원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로서 이루어 진것임.

8. Persons, who cleaned the teeth every day were 76.92% in the rural residents, but lesser in the younger age groups.
9. 69.23% of the persons cleaned teeth every day cleaned the teeth once, 28.85% twice, and 1.92% thrice in a day.
10. Average number of the toothbrushing times per person per day was 1.02 times.
11. Teeth were brushed before breakfast in 61.74%, after breakfast in 18.84%, after lunch in 0.83%, before dinner in 0.58%, after dinner in 15.36%, and after between meals or before going bed in 2.61% of the total toothbrushing times.
12. salt was used in 18.08% of the rural residents as the dentifrice.
13. 9.23% of persons cleaning the teeth every day was without toothbrushes.
14. Teeth were brushed horizontally in 99.58% of the residents brushing teeth every day.
15.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ve control of the dental diseases was not known to the Korean rural residents sufficiently, and concurrently, only a few preventive dental cares were provided to the young rural residents.
16. Dental care delivery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the Korean rural residents as soon as possible, because even though emergency dental cares, those were provided to the rural residents insufficiently.

一 目 次

1. 緒 論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對象	
2) 研究方法	
III. 研究成績	
IV. 考 按	
V. 結 論	
參 考 文 獻	

1. 緒 論

著者¹⁾는 大學生의 効率的인 口腔保健管理方案을 찾는 데에 基礎資料로 하기 爲하여, 大學 新入生을 對象으로 口腔保健實態를 調査하여, 韓國口腔保健協會²⁾가 우리나라 全域에 居住하는 滿 19歲 韓國 青年을 相對로 調査한 結果와 比較하는 過程에, 教育水準으로 보나, 家庭 形便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一般 青年들 보다는 良

好했어야 할 大學生들의 口腔保健狀態가 오히려 反對的인 實態로 나타난 것을 發見하고, 大學生의 口腔保健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다시 調査 評價해 본 바 있다³⁾. 그리고 이 調査 研究의 結果로 우리나라 大學生에서는 口腔保健知識 水準이 大端히 낮기 때문에, 口腔保健狀態가 不良하고, 따라서 初中高等學校에서의 부실한 口腔保健教育의 強化가 要求되며, 이러한 強化方案으로서는 齒科衛生士의 大量 養成 活用이 바람직하고, 大學生에 對한 齒科醫療供給도 大學生 自身들이 口腔保健의 重要性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어서 充分치 못하며, 우리나라 口腔保健界에서는 잇솔使用 人口를 增加시키는 것 보다는 잇솔과 齒藥의 올바른 使用法을 보급시켜야 하고, 韓國에서 잇솔과 齒藥의 需要는 開發할 餘地가 있으며, 아직도 傳統的 觀念上的 惰性이 大學生의 口腔保健管理에도 影響을 미치고 있었고, 大學生의 豫防的 口腔保健管理 概念이 稀薄하다는 結論을 얻었다. 이러한 大學生의 口腔保健管理實態와 結付시켜 볼 때, 無齒醫村 住民의 口腔保健管理 實態가 不良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推定되기도 한다. 그러나 韓國 國民의 口腔保健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口腔保健事業을 計劃하는 過程에는 보다 正確한 調査 結果가 要求되는 것이다.

이에 著者は 無齒醫村 住民의 口腔保健에 影響을 미치는 口腔保健管理 實態를 繼續하여 調査 評價에 本 바 있어, 報告한다.

II. 調査對象 및 方法

1. 調査對象

京畿道 城南市 郊外地域과 全羅南道 장성군 및 담양군 住民 中에서 無作為로 抽出한 338名을 調査 對象으로 하였다. 調査 對象者의 年齡群別 分布는 表 1과 같이 6—9歲가 44名이었고, 10—19歲가 59名이었으며, 20—29歲가 42名이었고, 30—39歲가 56名이었으며, 40—49歲가 42名이었고, 50—59歲가 45名이었으며, 60—69歲가 50名이었다.

Table 1. Number of persons interviewed by age group.

Age group	Number of persons interviewed
6—9	44
10—19	59
20—29	42
30—39	56
40—49	42
50—59	45
60—69	50
Total	338

2. 調査方法

個別面談過移을 通하여 그림 1과 같은 口腔保健管理 實態 調査用紙에 每 調査對象者의 口腔保健知識 水準과 齒科醫療 需給狀況 및 口腔保健管理 狀態등을 調査 記錄하여, 集計 分析 評價해 보았다.

口腔保健知識 水準을 評價하기 爲하여서는 사람의 乳齒와 永久齒의 數를 아는지의 如否를 調査해 보았고, 各 個人에 對한 齒科醫療의 需給狀況은 齒科治療를 받아 본 經驗이 있는지의 如否와, 齒科治療를 받아 보았던 者는 어떠한 齒科醫療機關에서 治療를 받았으며,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治療를 모두 받았는지의 如否, 그리고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治療를 받지 못 하였을 境遇에 는 어떠한 事由로 治療를 못 받았는지를 調査 分析해 보았으며, 口腔保健管理 實態를 把握하기 爲하여서는 잇솔과 齒藥의 使用實態와 口腔病 豫防의 必要性을 알고 있는 程度와 실제 口腔病을 豫防하기 爲한 豫防處置를 받아본 經驗의 如否를 調査 評價해 보았다.

III. 調査成績

사람의 乳齒 數를 알고 있는 者는 表 2와 같이 總面談 對象者 338名 中 23名이어서, 調査對象者의 6.80%만이 사람의 乳齒 數를 알고 있는 程度라 할 수 있었다. 年齡群別로 사람의 乳齒 數를 알고 있는 程度는 6—9歲群에서는 11.36%이었고, 10—19歲群에서는 11.86%이었으며, 20—29歲群에서는 7.14%이었고, 30—39歲群에서는 3.57%이었으며, 30歲 以上の 調査對象者 中에서는 사람의 乳齒 數를 알고 있는 者가 한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사람의 乳齒 數를 알고 있는 程度는 年齡과 逆比例 한다고 할 수 있었다.

사람의 永久齒 數를 알고 있는 者는 表 3과 같이 總面談對象者 338名 中 81名이어서, 23.96%이었다. 年齡群別로 보면 6—9歲群에서는 13.64%, 10—19歲群에서는 22.03%, 20—29歲群에서는 42.86%, 30—39歲群에서는 25.00%, 40—49歲群에서는 23.81%, 50—59歲群에서는 22.22%, 60—69歲群에서는 20.00%가, 各 各 사람의 永久齒 數를 알고 있었다.

Table 2. Persons who know the number of the deciduous teeth of human being.

Age group	No. of prs. interviewed	Persons who know		Persons who do not know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44	5	11.36	39	88.64
10—19	59	7	11.86	52	88.14
20—29	42	3	7.14	39	92.86
30—39	56	2	3.57	54	96.43
40—49	42	—	—	42	100.00
50—59	45	—	—	45	100.00
60—69	50	—	—	50	100.00
Total	338	23	6.80	315	93.20

Table 3. Persons who know the number of the permanent teeth of human being.

Age group	No. of prs. interviewed	Persons who know		Persons who do not know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44	6	13.64	38	86.36
10—19	59	13	22.03	46	77.97
20—29	42	18	42.86	24	57.14
30—39	56	14	25.00	42	75.00
40—49	42	10	23.81	32	76.19
50—59	45	10	22.22	35	77.78
60—99	50	10	20.00	40	80.00
Total	338	81	23.96	257	76.04

面談 當時까지 齒痛을 經驗한 者는 表 4와 같이 總面談者 338名 中 227名이어서, 調査對象者의 67.16%이었다. 年齡群別 齒痛經驗率은 6—9歲群에서 27.27%이었고, 10—19歲群에서는 28.81%이었으며, 20—29歲群에서는 73.81%이었고, 30—39歲群에서는 80.36%이었으며, 40—49歲群에서는 85.71%이었고, 50—59歲群에서는 91.11%이었으며, 60—69歲群에서는 90.00%이었다.

Table 4. Persons experienced toothache.

Age group	No. of prs. interviewed	Persons with experience		Persons without experienc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44	12	27.27	32	72.73
10—19	59	17	28.81	42	71.19
20—29	42	31	73.81	11	26.19
30—39	56	45	80.36	11	26.19
40—49	42	36	85.71	6	14.29
50—59	45	41	91.11	4	8.89
60—69	50	45	90.00	5	10.00
Total	338	227	67.16	111	32.84

齒痛을 經驗한 者 中에서 齒科治療를 받아본 사람은 表 5와 같이 總 227名의 齒痛治驗者 中에서 179名이어서, 78.85%이었다. 齒痛經驗者에 對한 齒科治療經驗者率을 年齡群別로 算出한 結果는 6—9歲群에서 16.67%이었고, 10—19歲群에서는 47.06%이었으며, 20—29歲群에서는 77.42%이었고, 30—39歲群에서는 80.00%이었으며, 40—49歲群에서는 86.11%이었고, 50—59歲群에서는 92.89%이었으며, 60—69歲群에서는 88.89%이었다.

Table 5. Persons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Age group	No. of prs. experienced Toothache	Persons with experience		Persons without experienc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12	2	16.67	10	83.33
10—19	17	8	47.06	9	54.94
20—29	31	24	77.42	7	22.58
30—39	45	36	80.00	9	20.00
40—49	36	31	86.11	5	13.89
50—59	41	38	92.68	3	7.32
60—69	45	40	88.89	5	11.11
Total	227	179	78.85	48	21.15

齒科治療를 받아본 사람 中에서 齒科醫師의 治療를 받은 者는 表 6과 같이 總 齒科治療經驗者 179名 中 129名이어서, 70.07%이었고, 나머지 27.93%인 50名은 不正齒科醫療業者의 加療를 받은 것으로 判明되었다.

齒科醫師의 加療를 받았던 129名 中에서 應性處置 以外の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齒科治療를 即時 받은 者는 表 7과 같이 60名이어서, 46.51%이었고, 20.16%인 21名은 얼마 後에 받았다고 하였으며, 33.33%인 43名은 全然 받지않는 者이었다.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加療를 바로 받은 者의 比率을 年齡別로 區分해 보면 表 7과 같이 6—9歲群에서 100%이었고, 10—19歲群에서 50.00%이었으며, 20—29歲群에서는 6.67%이었고, 30—39歲群에서는 50.00%이었으며, 40—49歲群에서는 60.86%이었고, 50—59歲群에서는 29.41%이었으며, 60—69歲群에서는 71.43%이었다.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齒科治療를 即核 받지는 못 하였으나, 얼마 後에 받은 者의 比率은 表 7과 같이 10—19歲群에서 25.00%이었고, 20—29歲群에서는 20.00%이었으며, 30—39歲群에서는 16.67%이었고, 40—49歲群에서는 34.78%이었으며, 50—59歲群에서는 14.71%이었

Table 6. Persons treated by qualified dentist.

Age group	No. of prs.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Persons treated by dentist		Persons treated by quack dentist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2	1	50.00	1	50.00
10—19	8	4	50.00	4	50.00
20—29	24	15	62.50	9	37.50
30—39	36	24	66.67	12	33.33
40—49	31	23	74.19	8	25.80
50—59	38	34	89.47	4	10.53
60—69	40	28	70.00	12	30.00
Total	179	129	70.07	50	27.93

Table 7. Persons consumed dental cares recommended by dentist.

Age group	No. of prs. treated by dentist	Persons consumed recommended dental care immediately		Persons consumed recommended dental care after some delay		Persons consumed no recommended dental car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1	1	100.00	—	—	—	—
10—19	4	2	50.00	1	25.00	1	25.00
20—29	15	1	6.67	3	20.00	11	73.33
30—39	24	12	50.00	4	16.67	8	33.33
40—49	23	14	60.89	8	34.78	1	4.35
50—59	34	10	29.41	5	14.71	19	55.88
60—69	28	20	71.43	5	17.86	3	10.71
Total	129	60	46.51	21	20.16	43	33.33

Fig. 1.

구강보건관리 실태 조사 용지

조사년월일 19 년 월 일

조사지역	코-드남파	1-3 <input type="text"/>
조사대상자 일련번호	코-드남파	4-6 <input type="text"/>
성 명	성 별 1 <input type="text"/> 남자 2 <input type="text"/> 여자	7 <input type="text"/>
연 령 만 <input type="text"/> 세		8-9 <input type="text"/>
학 령 1 <input type="text"/> 무 2 <input type="text"/> 국졸 3 <input type="text"/> 중졸 4 <input type="text"/> 고졸 5 <input type="text"/> 대졸		10 <input type="text"/>
문 1. 사람의 유치는 모두 몇개입니까? (개)	1 <input type="text"/> 정답 2 <input type="text"/> 오답	11 <input type="text"/>
문 2. 사람의 영구치는 모두 몇개입니까? (개)	1 <input type="text"/> 정답 2 <input type="text"/> 오답	12 <input type="text"/>
문 3. 이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1 <input type="text"/> 예 2 <input type="text"/> 아니오	13 <input type="text"/>
문 4. 치과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input type="text"/> 예 2 <input type="text"/> 아니오	14 <input type="text"/>
문 5. 치과치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1 <input type="text"/> 치과의원 2 <input type="text"/> 다른곳	15 <input type="text"/>
문 6. 치과의사가 권고하는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16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바로 받음 2 <input type="text"/> 얼마 후에 받음 3 <input type="text"/> 않받음		
문 7.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한 이유는?		17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시간이 나지 않아서 2 <input type="text"/>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3 <input type="text"/> 경제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4 <input type="text"/> 치과의원이 멀어서		
문 8. 치아는 매일 닦으십니까?	1 <input type="text"/> 예 2 <input type="text"/> 아니오	18 <input type="text"/>
문 9. 하루에 몇번 닦으십니까?		19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한번 2 <input type="text"/> 두번 3 <input type="text"/> 세번 4 <input type="text"/> 네번 이상		
문 10. 하루 중에는 언제 닦으십니까?		20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조반전 2 <input type="text"/> 조반후 3 <input type="text"/> 점심전 4 <input type="text"/> 점심후		
5 <input type="text"/> 저녁식사전 6 <input type="text"/> 저녁식사후 7 <input type="text"/> 간식을 먹은 다음이나 자기전		
문 11. 치아는 무엇으로 닦으십니까?	1 <input type="text"/> 치약 2 <input type="text"/> 소금	21 <input type="text"/>
문 12. 칫솔로 닦으십니까?	1 <input type="text"/> 예 2 <input type="text"/> 아니오	22 <input type="text"/>
문 13. 치아는 어떻게 닦으십니까?		23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횡마법 2 <input type="text"/> 종마법 3 <input type="text"/> 폰스법 4 <input type="text"/> 회전법		
5 <input type="text"/> 스틸멘법 6 <input type="text"/> 화터법 7 <input type="text"/> 기타 방법		
문 14. 입안에 생기는 충치나 풍치같은 병은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24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예 2 <input type="text"/> 모르겠습니다 3 <input type="text"/> 필요없다고 봅니다		
문 15. 실제 충치나 풍치같은 병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5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예 2 <input type="text"/> 아니오		

Table 8. Factors interfering the consumption of the recommended dental cares

Age group	No. of prs. consumed no recommended dental care immediately	Limitation on time		Identified no need		Economic limitation		Geographical limitation	
		No.	Percen.	No.	Percen.	No.	Percen.	No.	Percen.
6-9	—	—	—	—	—	—	—	—	—
10-19	2	—	—	—	—	1	50.00	1	50.00
20-9	14	—	—	8	57.14	6	42.86	—	—
30-39	12	2	16.67	4	33.33	6	50.00	—	—
40-49	9	6	66.67	1	11.11	2	22.22	—	—
50-59	24	—	—	5	20.83	19	79.17	—	—
69-69	8	—	—	1	12.50	7	87.50	—	—
Total	69	8	11.59	19	27.54	41	59.42	1	1.45

고, 60-69歲群에서는 17.86%이었다. 應急齒科處置 以外の 齒科治療를 받을 必要가 있다는 事實을 齒科醫師로 부터 알고도, 全然 그러한 加療를 받지않은 者를 年齡群別로 區分해 보면 表 7과 같이 10-19歲群에서 25.00%이었고, 20-29歲群에서는 73.33%이었으며, 30-39歲群에서는 33.33%이었고, 40-49歲群에서는 4.35%이었고, 50-59歲群에서는 55.88%이었고, 60-69歲群에서는 10.71%이었다.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應急處置 以外の 齒科治療를 바로 받지 못한 者 69名 中에서 11.59%인 8名은 時間的 制約 때문이었다고 하였고, 27.54%인 19名은 必要性을 認定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였고, 59.42%인 41名은 經濟的 制約 때문이었다고 하였고, 1.45%인 1名은 齒科醫院이 너무 멀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6-9歲群에서는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治療를 못 받은 者가 한 사람도 없었고, 10-19歲群에서는 1名이 經濟的 制約으로, 다른 1名은 地理的 制約으로, 各各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齒科治療를 못 받은 者이었다. 20代에서는 57.14%인 8名이 必要性을 認定할 수 없었다는 理由로, 42.86%인 다른 6名이 經濟的 制約으로 各各 齒科醫師의 勸告를 받고도 齒科治療를 못 받았다고 하였다. 30代에서는 12名 中 16.67%인 2名이 時間 制約으로, 33.33%인 4名이 必要性의 認定 不可로, 50.00%인 6名이 經濟的 制約으로, 各各 바로 治療를 못 받았다고 하였고, 40代에서는 9名 中 66.67%인 6名이 時間 制約으로, 11.11%인 1名이 必要性을 認定할 수 없었다는 理由로, 22.22%인 다른 2名이 經濟的 制約으로, 各各 加療를 바로 받지 않았다. 60代 24名 中 20.83%인 5名은 必要性을 認定할 수 없었다는 理由와 79.17%인 다른 19名은 經濟的 制約으로 各各 應急治療 外에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齒科治療를 即刻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60代 8名 中에서 12.50%인 1名은 必要한 것이 없이었다는 理由로, 87.50%인 다른 7名은 經濟的 制約으로, 各各 바

로 勸告된 治療를 못 받았다고 하였다.

總 面談對象者 338名 中에서 每日 한번 以上 잇솔을 利用하여 齒牙를 닦는 사람은 表 9와 같이 26.92%인 260名이었고, 23.08%인 78名은 每日 이를 닦지않는다고 하였다. 每日 한번 以上 이를 닦는 者의 比率을 年齡群別로 區分해 보면 表 9와 같이 6-9歲群에서는 22.73%이었고, 10-19歲群에서는 44.07%이었으며, 20-29歲群에서는 100.00%이었고, 30-39歲群에서는 96.43%이었으며, 40-49歲群에서는 90.48%이었다. 50-59歲群에서는 88.89%이었고, 60-69歲群에서는 100.00%이었다.

Table 9. Persons who Clean teeth every day.

Age group	No. of prs. interviewed	Persons cleaning teeth every day		Persons not cleaning teeth every day	
		Number	Percen.	Number	Percen.
6-9	44	10	22.73	34	77.27
10-19	59	26	44.07	33	55.93
20-29	42	42	100.00	—	—
30-39	56	54	96.43	2	3.57
40-49	42	38	90.48	4	9.52
50-59	45	40	88.89	5	11.11
60-69	5	50	100.00	—	—
Total	338	260	26.92	78	23.08

每日 한번 以上 이를 닦는 사람 260名 中에서 하루에 한번씩 닦는 者는 表 10과 같이 69.23%인 180名이었고, 하루에 두번씩 닦는 사람은 28.85%인 75名이었고, 하루에 세번씩 닦는 者는 1.92%인 5名이었다. 그러나 每日 4回 以上 잇솔질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年齡群別로 日中 잇솔질의 回數를 整理한 結果는 表 10과 같이 6-9歲群에서는 모두 하루에 한번씩 닦고 있었고, 10代에서는 每日 이를 닦는 者 26名 中 69.23%인 18名이 한번씩, 23.08%인 6名이 두번씩, 7.69%인 2名이 세번씩, 各各 이를 닦고 있었다. 20代에서는 42名 中 57.14

Table 10. Number of toothbrushing times per day

Age group	No. of prs. brushing teeth every day	Once per day		Twice per day		Thrice per day		Fource per day	
		No.	Percen.	No.	Percen.	No.	percen.	No.	Percen.
6—9	10	10	100.00	—	—	—	—	—	—
10—19	26	18	69.23	6	23.08	2	7.69	—	—
20—29	42	24	57.14	15	35.71	3	7.14	—	—
30—39	54	44	81.48	10	22.73	—	—	—	—
40—49	38	24	63.16	14	36.84	—	—	—	—
50—59	40	25	62.50	15	37.50	—	—	—	—
60—69	50	35	70.00	15	30.00	—	—	—	—
Total	260	180	69.23	75	28.85	5	1.92	—	—

%인 24명이 한번씩, 35.71%인 15명이 두번씩, 7.14%인 3명이 세번씩, 각각 이를 닦고 있었고, 30대에서는 54명 중, 81.48%인 44명이 하루에 한번씩, 22.73%인 10명이 하루에 두번씩, 각각 이를 닦고 있었다.

40대에서는 38명 중 63.16%인 24명이 한번씩, 36.84%인 14명이 두번씩 각각 이를 닦고 있었고, 50대에서는 40명 중 62.50%인 25명이 한번씩, 37.50%인 15명이 두번씩 각각 이를 닦고 있었으며, 60대에서는 50명 중 70.00%인 35명이 하루에 한번씩 30.00%인 15명이 하루에 두번씩, 각각 잇솔질을 하고 있었다.

表 10에서 總 面談對象者가 하루에 하는 잇솔질의 延 回數를 算出한 結果는 表 11과 같이 345회이었고, 面談對象者는 338명이었으므로, 無齒醫村 住民의 每日 一人 平均 잇솔질의 回數는 1.02회이었다. 이번 調査 結果에서 算出한 無齒醫村 住民의 每日 一人 平均 잇솔질의 回數를 年齡群別로 살펴보면 表 11과 같이 6—9歲群에서는 0.23회, 10—19歲群에서는 0.61회, 20—29歲群에서는 1.47회, 30—39歲群에서는 1.14회, 40—49歲群에서는 1.24회, 50—59歲群에서는 1.22회, 60—69歲群에서는 1.30회이었다.

Table 11. Average number of toothbrushing times per person per day

Age group	Total toothbrushing times	No. of prs. interviewed	Average number of daily toothbrushing times per person
6—9	10	44	0.23
10—19	36	59	0.61
20—29	63	42	1.47
30—39	64	56	1.14
40—49	52	42	1.24
50—59	55	45	1.22
60—69	65	50	1.30
Total	345	338	1.02

하루 中에서 잇솔질을 하는 時期를 調査해본 結果는 表 12와 같이 延 잇솔질 回數 345回 中에서 61.74%인 213회가 朝飯前에 하는 것이었고, 18.84%인 65회가 朝飯後에 하는 것이었으며, 0.87%인 3회가 中食後에 하는 것이었고, 0.58%인 2회가 저녁食事前에 하는 것이었고, 15.36%인 53회가 저녁食事後에 하는 것이었으며, 2.61%인 9회는 取寢前이나 間食後에 하는 것이었다. 年齡別로 日中 잇솔질을 하는 時期를 살펴보면 表 12와 같이 6—9歲群에서는 모두 朝飯前에 하고 있었고, 10代에서는 72.22%가 朝飯前에, 13.89%가 朝飯後에, 5.56%가 저녁食事前에 8.33%가 저녁食事後에 各各 하는 것이었다. 20代에서는 33.33%가 朝飯前에, 다른 33.33%가 朝飯後에, 4.76%가 中食後에, 14.29%가 저녁食事後에, 14.29%가 取寢前이나 間食後에 各各 하는 것이었다. 30代에서는 59.38%가 朝飯前에, 28.13%가 朝飯後에, 12.50%가 저녁食事後에 各各 하는 것이었고, 40代에서는 73.08%가 朝飯前에, 11.54%가 朝飯後에, 15.38%가 저녁食事後에 各各 하는 것이었다. 50代에서는 72.73%가 朝飯前에 하는 것이었고, 23.08%가 朝飯後에 하는 것이었으며, 15.38%가 저녁食事後에 하는 것이었다. 60代에서는 61.54%가 朝飯前에 하는 것이었고, 23.08%는 朝飯後에 하는 것이었으며, 15.38%는 저녁食事後에 하는 것이었다.

每日 잇솔질을 하는 사람 260名 中에서 齒藥을 使用하고 있는 者는 表 13과 같이 81.92%인 213명이었고, 18.08%인 47名은 아직도 食鹽을 洗齒劑로 使用하고 있었다. 年齡群別로 食鹽을 洗齒劑로 使用하는 者의 比率를 算出한 結果는 表 13과 같이 6—9歲群에서 10%이었고, 10代群에서는 7.69%이었으며, 20代群에서는 14.29%이었고, 30代群에서는 20.37%이었다. 40代群에서는 21.05%이었고, 50代群에서는 22.50%이었으며, 60代群에서는 20.00%이었다.

每日 規則的으로 이를 닦는 사람 260名 中에서 잇솔

Table 12. Toothbrushing times in a day

Age group	Total tooth brushing times	Before breakfast		After breakfast		Before lunch		After lunch		Before dinner		After dinner		After meal or before going bed	
		No	Per	No	Per	No	Per	No	Per	No	Per	No	Per	No	Per
6-9	10	10	100.00	—	—	—	—	—	—	—	—	—	—	—	—
10-19	36	26	72.22	5	13.89	—	—	—	—	2	5.56	3	8.33	—	—
20-29	63	21	33.33	21	33.33	—	—	3	4.76	—	—	9	14.29	9	14.29
30-39	64	38	59.38	18	28.13	—	—	—	—	—	—	8	12.50	—	—
40-49	52	38	73.08	6	11.54	—	—	—	—	—	—	8	15.38	—	—
50-59	55	40	72.73	—	—	—	—	—	—	—	—	15	27.27	—	—
60-69	65	40	61.54	15	23.08	—	—	—	—	—	—	10	15.38	—	—
Total	345	213	61.74	65	18.84	—	—	3	0.87	2	0.58	53	15.36	9	2.61

Table 13. Persons using salts as dentifrice of persons cleaning teeth every day.

Age group	No. of prs. brushing teeth every day	Persons brushing teeth every day with toothpaste		Persons brushing teeth every day with salts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10	9	90.00	1	10.00
10-19	26	24	92.31	2	7.69
20-29	42	36	85.71	6	14.29
30-39	54	43	79.63	11	20.37
40-49	38	30	78.95	8	21.05
50-59	40	31	77.50	9	22.50
60-69	50	40	80.00	10	20.00
Total	260	213	81.92	47	18.08

Table 14. Persons brushing tooth with brushes every day.

Age group	No. of prs. cleaning teeth every day	Persons brushing teeth with toothbrushes		Persons cleaning teeth without toothbrushes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10	8	80.00	2	20.00
10-19	26	23	88.46	3	11.54
20-29	42	42	100.00	—	—
30-39	54	54	100.00	—	—
40-49	38	34	89.47	4	10.53
50-59	40	35	87.50	5	12.50
60-69	50	40	80.00	10	20.00
Total	260	236	90.77	24	9.23

을 이용하는 자는 表 14와 같이 90.77%인 236명이었고, 나머지 9.23%인 24명은 손가락으로 닦는다고 하였다. 年齡別로 區分해 보면 表 14와 같이 20代와 30代에서는 손가락으로 이를 닦는 자가 한명도 없었으나, 6-9歲群에서 20.00%가, 10代群에서는 11.54%가, 40代群에서는 10.53%가, 50代群에서는 12.50%가, 60代群에서는 20.00%가 각각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다고 하였다. 每日 이를 닦는 자가 이를 닦는 方法을 調査해본 結

果는 表 15와 같이 每日 이를 닦는 자 236名 중에서 99.58%인 235名이 水平法으로 이를 닦고 있었으며, 나머지 0.42%인 1名만이 回轉法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回轉法으로 이를 닦고 있는 자는 10代에 屬하는 學生이었다.

總 面談對象者 中에서 豫防齒科處置之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는 자는 表 16과 같이 84.02%인 284名이었는데, 40代 以上되는 사람은 모두 認定하고 있었고, 10代 以下

Table 15. Toothbrushing technic which interviewed persons brush teeth by.

Age group	No. of Prs. brushing teeth every day	Horizontal technic		Roll technic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8	8	600.00	—	—
10-19	23	22	195.65	1	4.35
20-29	42	42	00.00	—	—
30-39	54	54	100.00	—	—
40-49	34	34	100.00	—	—
50-59	35	35	100.00	—	—
60-69	40	40	100.00	—	—
Total	236	235	99.58	1	0.42

Table 16. Persons wh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the dental preventive measures.

Age group	No. of prs. interviewed	persons identifying significance		persons not knowing significance		Persons unjustifying significanc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44	15	34.09	29	65.91	—	—
10-19	59	34	57.63	24	40.68	1	1.69
20-29	42	42	100.00	—	—	—	—
30-39	56	56	100.00	—	—	—	—
40-49	42	42	100.00	—	—	—	—
50-59	45	45	100.00	—	—	—	—
60-69	50	50	100.00	—	—	—	—
Total	338	284	84.02	53	15.68	1	0.30

Table 17. Persons whom dental preventive care provided.

Age group	No. of prs. interviewed	persons consumed dental preventive care		Persons not consumed dental preventive care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6-9	44	2	4.55	42	95.45
10-19	59	1	1.69	58	98.31
20-29	42	—	—	42	100.00
30-39	56	—	—	56	100.00
40-49	42	—	—	42	100.00
50-59	45	—	—	45	100.00
60-69	50	—	—	50	100.00
Total	338	3	0.89	335	99.11

인 者 中에서 口腔病을 사전에 豫防할 必要性을 모르고 있는 者가 있었다. 6-9歲群에서는 34.09%인 15名이 豫防齒科處置之 重要性을 알고 있었고, 10代群에서는 57.63%인 34名이 口腔病을 미리 豫防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는 反應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豫防齒科處置가 必要 없을 것이라는 反應을 나타낸 者도 1名이 있었고, 15.68%인 53名은 잘 모르겠다는 反應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0代 以下에 屬하는 者들이었다.

다.

豫防齒科處置之 實際 받아본 經驗이 있다는 者는 表 17과 같이 總 面談對象者 338名 中 0.89%인 3名에 不過하였고, 나머지 99.11%인 335名은 아무런 口腔病의 豫防處置之를 받아보지 못 한 者들이었다. 特히 豫防齒科處置之를 받아본 經驗이 있다는 者는 6-9歲群의 2名과 10代의 1名이었다.

Ⅳ. 考 按

우리나라에서國民의口腔保健을向上시키려는努力의一環으로口腔病에關한記術疫學的인研究는比較的 많이 이루어져韓國口腔保健協會^{25, 4)}가全國的인規模로韓國人의口腔疾患에關한疫學調査를한業績을爲始하여,二次大戰前에는柳樂,⁵⁾平岡⁶⁾加藤,⁷⁾ 등이兒童의齒牙齶蝕罹患率을調査하여,各各48.8%, 81.38%, 95.1%라고報告한바있고,解放後에는車,^{8, 9, 10)}孫,¹¹⁾金等¹²⁾이國民學校兒童을對象으로齒牙齶蝕經驗度를研究하였으며,金¹³⁾은國民學校兒童들의口腔保健管理에對하여考察하였고,金¹⁴⁾은韓國兒童의齒齶炎發生頻度를觀察하였으며,裡里市齒科醫師會¹⁵⁾는國民學校兒童의口腔衛生實態를調査報告하며,學童齒牙齶蝕症豫防策의緊要性を提擧한바있고,著者¹⁶⁾도大學新入生을對象으로齒牙齶蝕經驗도와齒周組織疾患의有病率을調査報告한바있다.그러나解釋疫學的研究結果를規명한口腔病發生要因을管理하는것이보다效果的인口腔病의管理姿勢라하겠다.특히口腔病을管理하는데에는豫防的管理인病勢管理인間에專門家の處置外에各個人이自發的이고合理的인家庭口腔保健管理가重要하다.²¹⁾ 그러므로著者¹⁷⁾는大學新入生을對象으로口腔保健實態를調査한다음,口腔保健知識水準과口腔保健管理實態를調査檢討하였고,이번에는無齒醫村住民의口腔保健知識水準과口腔保健管理實態를調査評價해보았다.

이번에도口腔保健知識水準을簡單히評價하기爲하여서는任等²¹⁾과같이사람의乳齒와永久齒의數를알고있는者가어느程度인지를調査해보았다.이번에著者가調査한바에依하면表2와같이사람의乳齒數를알고있는者는無齒醫村住民의6.80%이었고,나머지93.20%는모르는者이었으며,永久齒의數를알고있는者는表3과같이23.96%이었다.따라서調査對象者의18.0%가사람의乳齒數를알고있고,18.4%가永久齒의數를알고있는大學新入生³⁾에比하여는口腔保健知識水準이낮다고할수있다.그러나農村住民에서사람의乳齒를알고있는者가7.6%이었다고하는任等²¹⁾의調査成績과는一致되는現象으로나타났다.口腔保健知識水準을年齡別로分析해볼때,表2와같이사람의乳齒數를아는者는齒牙交換期라고할수있는6—9歲群과10代群에比較的 많은便이었고,永久齒의數를아는사람은10代以上에서各年齡群에特記할程度의差異가없이分布되어있다.이러한現象으로미루어볼때,우리나라에서無齒醫村住民들의口腔保健知識水準에는아직까지學校教育이

아무리한影響을미치지 못하고 있다는證據가아닌가推定된다.萬一學校教育이住民의口腔保健知識水準에實質的으로影響을미친다고하면,20代나30代住民中에서사람의乳齒數를알고있는比率이齒牙交換期兒童에서보다낮을理가없을것이라고생각되기때문이다.不良한口腔保健狀態는낮은口腔保健知識水準과確實한關係를가지고있기³⁾때문에,著者는우리나라國民들의口腔保健을向上시키기爲하여서는各級學校에서부실하게하고있는口腔保健教育의強化가要求된다고본다.

그러나國民學校教師들과養護教師들도二世國民들이스스로口腔保健管理를할수있도록指導할만한能力은고사하고,自身들의口腔保健管理조차할수없는能力밖에가지고있지못하다는任等²¹⁾의調査成績과結付시켜볼때,莫然한國民口腔保健教育의強化란아무리한實效를거둘수없는空論에서끝일가능성이있다고본다.그러므로著者는韓國口腔保健協會^{25, 4)}의主張과같이大量的齒科衛生士를養成하여,國民口腔保健教育에活用해야한다고본다.

한편口腔保健管理狀況의一部로서齒痛을經驗한者와齒痛經驗者中齒科治療를받아본經驗程度를調査해보았던바는表4와같이總調査對象者의67.16%가齒痛을經驗한者이었고,齒痛經驗者中에서는表5와같이78.85%만이齒科治療를받아본者이었다.韓國人의齒牙齶蝕經驗률이85—98%程度라고한車,⁸⁻¹⁰⁾孫¹¹⁾의報告와韓國人의齒周組織疾患有病率が99.48%이었다고主張한金²²⁾의成績과結付시켜볼때,口腔病의有病率과齒痛의誘發率의사이에 상당한差異가있다는것을意味하는것이라하겠다.同時에齒痛經驗者中에서도78.85%만이齒科治療를經驗한者라는結果로나타난現象은우리나라사람들이應急性齒科處置도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는것을立證하는結果라하겠다.특히나年齡群別로본때高齡者에서보다年少者群에서齒痛經驗者中 낮은比率에屬하는者가齒科治療를받았다는결과 이번著者의調査過程에서齒科治療의經驗期間을限定하지않았다는事實을 감안하면,78.85%보다도 훨씬 낮은比率에屬하는사람들만이應急性齒科處置를받고있다고볼수있다.더구나應急性齒科處置의概念을慢性性口腔感染病巢의除去에까지擴大해본다면,韓國無齒醫村住民들은應急性齒科處置마저너무못받고있는現況이라보지않을수없다.따라서우리나라에서齒科醫療傳達體系의確立이切實하게要求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그러나齒痛經驗者率이形式상으로年齡과正比例하였던것은著者自身の調査結果이기도하나,齒痛을經

驗한 期間을 限定하지 않았으므로, 別다른 意味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齒痛經驗率을 調査할 境遇에는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中에 齒痛을 經驗한 者의 百分率을 調査해야 되지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對한 齒科醫療供給에 障礙의 作用하는 要因의 一端을 考察해 보고져, 齒科治療를 받아본 經驗을 가지고 있는 者들은 어디서 齒科治療를 받았으며, 口腔保健專門家인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齒科治療를 바로 받은 者는 얼마나 되고, 바로 받지 못한 者는 어떠한 制約으로 바로 받지 못 하였는지를 調査 分析해 보았다. 이번 調査 結果에 依하면 齒科治療를 받아본 經驗을 가지고 있는 住民中 70.07%가 齒科醫師로부터 治療를 받은 것으로 判明되었으나, 나머지 27.93%는 表 6과 같이 不正齒科醫療業者에 依한 治療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看做할 수 없는 問題의 하나로 思料되는 바, 不正齒科醫療行爲의 根絶을 爲한 보다 廣範圍하고 仔細한 研究가 要望된다 하겠다. 全國의인 水準의 齒科醫療傳達體系를 確立함으로써만이 解決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不正齒科醫療行爲를 規制할 수 있는 法條文의 마련이나 行政的 規制는 우리나라 現代口腔保健史的 側面에서 볼 때, 臨時彌縫策에 不過하였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口腔保健專門家인 齒科醫師가 勸告하는 齒科治療를 바로 받은 者는 表 7과 같이 齒科醫師로부터 齒科治療를 받아 보았던 129名中 46.51%인 60名에 不過하였고, 나머지는 바로 勸告된 治療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는 데에 作用한 要因은 表 8과 같이 經濟的 制約이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作用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齒科醫療傳達體系를 確立해 나아가는 過程에는 社會保障原理에 立脚하여 齒科醫療費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게 作用한 要因은 必要性을 認定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口腔保健教育의 強化가 要求된다고 同時에 말할 수 있다. 한便 表 8과 같이 11.59%는 時間的 制約으로 齒科治療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判明되었다. 特히 이러한 者들은 30代와 40代에 屬하는 者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生業에 直接 종사하는 者들이 健康을 돌볼 수 있는 時間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配慮를 해야할 必要性이 있다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經濟的 制約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特히 50代 및 60代의 사람이 많았다는 점은 特히 仔細히 研究해 볼 價値가 있다고 본다.

口腔保健管理法中 家庭口腔保健管理法의 比重을 絶

對로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金等²³⁾과 朴²⁴⁾은 口腔疾患을 管理하는 데에는 專門的 管理 以外에 家庭口腔保健管理가 重要하다는 것을 力說하였고, 家庭口腔保健管理法中에서 代表的인 것이 잇솔使用法이며 잇솔을 올바르게 使用하므로써 齒牙齦蝕症이 比較的 效果的으로 豫防된다고 主張하였다. Glickman²⁵⁾도 醫學分野의 다른 어떠한 豫防法이나 管理法보다도 잇솔질이 齒齦炎의 가장 優秀한 豫防法이며, 사람이 5歲부터 50歲까지 잇솔을 利用한 口腔衛生管理를 철저히 하면, 一生 齒周組織의 破壞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므로 著者は 이번엔 無齒醫村 住民을 對象으로 口腔保健管理狀況을 調査함에 있어서도 잇솔을 利用한 家庭口腔保健管理狀況도 調査해 보았다. 表 9와 같이 76.92%만이 每日 치아를 닦는 者이었으며, 나머지 23.08%는 매일 이도 닦지 않는 者들이었다. 著者가 調査한 大學生의 口腔保健管理實態와 比較하여 볼 때, 當然한 結果라고도 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國民의 口腔保健管理問題가 深刻한 것이라는 證據가 아닌가 思料된다. 더구나 大學生層에 屬하는 者들이 表 9와 같이 이를 比較的 잘 닦지않고 있다는 點까지를 고려하면 二世國民의 口腔保健이 念慮된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여기에 每日 이를 닦는다는 者 中에서도 69.23%는 表 10과 같이 하루에 한번씩만 이를 닦고 表 12와 같이 全體 이닦기의 61.74%가 朝飯前에 닦는 것이라는 點까지를 감안하면 더욱 問題는 深刻하다고 보지않을 길이 없다. 實로 우리나라에서 國民口腔保健을 向上시키기 爲하여서는 口腔保健教育이 強化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特히나 莫然히 口腔保健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할 것이 아니라, 이제 具體的으로 効率的인 口腔保健教育方法이 무엇인가를 研究 開發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 開發이 可能하려면 먼저 齒科大學의 豫防齒科를 強化하는 措置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齒科大學 附屬病院에 豫防齒科를 優先 設置해야 할 것이다.

一日 一人平均 잇솔질의 回數를 算出해 본 結果는 表 11과 같이 全體의으로 1.02回이었다. 이러한 回數나 食事後에 잇솔질을 해야한다는 概念에 結付시켜 볼 때 너무나 낮은 잇솔질의 回數라 볼 수 있다. 잇솔 使用人口率이 낮다는 事實과 함께 注目할 現象이라 생각된다. 表 12와 같이 이를 닦는 時間에 있어서도 61.74%가 朝飯前에 닦는 것이고, 食後에 이를 닦는 率이 적다는 것도 口腔保健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할 수 있는 資料라고 看做된다.

表 14과 같이 아직도 많은 田園地域 住民들이 食鹽을 洗齒劑로 使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口腔保健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證據라 하겠다.

그리고 表 14와 같이 調查對象者의 9.23%가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다는 것도 같은 性格의 資料라 하겠다. 表 15와 같이 99.58%가 水平法으로 이를 닦는다는 事實도 같은 證據라고 생각되며, 表 16 및 17과 같이 口腔病의 豫防의 管理의 必要性을 잘 모르는 現象이나, 實際 豫防의 口腔病管理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도 大同小異한 原因으로 나타나는 結果라고 본다.

總括的으로 보아, 우리나라 田園地域住民들의 口腔保健知識水準은 比較할 必要조차 없을 程度로 낮고, 그 結果 口腔保健管理 實態가 極히 不良한 實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韓國의 齒科醫療傳達體系가 確立되어야 하겠고, 同時에 口腔保健教育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著者は 京畿道 城南市 郊外地域과 全羅南道 장성군 및 담양군 住民 338名을 對象으로 口腔保健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口腔保健知識 水準과 口腔保健管理 實態를 直接個別面談法으로 調査 分析해 보았던 바,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사람의 乳齒數를 알고 있는 者는 總 調查對象者의 6.80%에 不過하였고, 低年齡에 比較的 많았다.
2. 사람의 永久齒 數를 알고 있는 者는 調查對象者의 23.96%이었고, 學生層에서 比較的 적었다.
3. 平均 齒痛經驗率은 67.16%이었다.
4. 齒痛經驗者 中 齒科治療經驗者는 78.85%이었고, 低年齡層에서 比較的 적었다.
5. 齒科治療經驗者 中에서 27.93%가 不正齒科醫療業者의 加療를 받은 者이었다.
6. 齒科醫師로부터 齒科治療를 받아본 經驗이 있는 者가 應急性 齒科治療 以外的 治療를 받을 必要가 있다는 事實을 告知받고 齒科治療를 即刻받은 者는 46.51%에 不過하였다.
7. 齒科醫師로부터 應急性 齒科治療를 除外한 齒科治療를 더 받을 必要가 있음을 告知받고도, 即刻 齒科治療를 받지 못한 者 中에서 11.59%는 時間的 制約으로, 27.54%는 必要性을 認定할 수 없었기 때문에, 59.42%는 經濟的 制約으로, 1.45%는 地理的 問題 때문에, 각각 即時 治療를 못 받았다고 하였고, 特別 時間的 制約은 30代와 40代層에서만 받고 있었다.
8. 調查對象者 中에서 齒牙를 每日 規則的으로 닦는 者는 76.92%에 不過하였고, 學生層에서 比較的 齒牙를 잘 닦지않고 있었다.
9. 每日 規則的으로 齒牙를 닦는 者 中에서 한번씩 닦는 者는 69.23%이었고, 두번씩 닦는 者는 28.85%이

으며, 1.92%는 3번씩 닦고 있었고, 每日 3회씩 닦는 者는 10代와 20代에 限定되어 있었다.

10. 하루平均 잇솔질 回數는 1.02회이었고, 30代까지는 年齡과 正比例하였으나 40代부터는 年齡과 逆比例하였다.
11. 總 잇솔질 中에서 61.74%는 朝飯前에, 18.84%는 朝飯後에, 0.87%는 中食後에, 0.58%는 저녁食事前에, 15.36%는 저녁食事後에, 2.61%는 間食後나 取寢前에, 각각 닦는 것이었고, 間食後나 取寢前에 닦는 者는 20代에 限定되어 있었다.
12. 每日 이를 닦는 者 中에서도 18.08%는 食鹽을 洗齒劑로 사용하고 있었다.
13. 每日 이를 닦는 者 中에서도 9.23%는 잇솔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4. 每日 이를 닦는 者의 99.58%가 水平法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15. 豫防齒科處置之 重要性은 低年齡層에서 比較的 認識하지 못하는 傾向이 있으면서도, 極小數이기는 하나 豫防齒科處置之 經驗者는 低年齡層에 限定되어 있었다.
16. 韓國에서 齒科醫療傳達體系의 確立이 時急하다.

參 考 文 獻

- 1) 朴光振: S大學 新入生の 口腔衛生狀態 및 齒周組織疾患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2: 29, 1974.
- 2) 韓國口腔保健協會: 韓國人 口腔疾患에 關한 疫學的 調査 報告(第二次 報告). 韓國口腔保健協會, 1972.
- 3) 朴光振: 大學生의 口腔保健管理實態 調査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2: 841, 1974.
- 4) 韓國口腔協會: 韓國人 口腔疾患에 關한 疫學的 調査 報告(第一次 報告). 韓國口腔協會, 1971.
- 5) 柳樂: 朝鮮醫學會雜誌, 47號, 49號(1921, 1925).
- 6) 平岡: 齒科學報, 39卷, 2號(1935).
- 7) 加藤: 齒科學報, 37卷, 5號, (1932).
- 8) 車文豪, 金鎮泰: 韓國人 國民學校兒童의 def, DMF에 對한 研究(一次報告). 5: 43~49. 1962.
- 9) 車文豪, 金鎮泰: 韓國人 國民學校 兒童의 def, DMF에 對한 研究(二次報告). 綜合醫學, Vol. 8, No. 9, 97~109, 1963.
- 10) 車文豪, 金鎮泰: 國民學校 兒童 齶蝕症罹患率에 關한 考察. 綜合醫學, Vol. 8, No. 11, 145~150. 1963.
- 11) 孫同銖: 濟州道 國民學校 兒童의 齶蝕症과 齒齦炎에 關한 統計學的 研究. 綜合醫學, Vol. 9, No. 8, 1964.

- 12) 金瑞東, 任東祐, 金鍾培, 金周煥: 韓國學童의 乳齒 永久齒齲蝕經驗率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1: 101, 1973.
- 13) 金永燾: 國民學校兒童들의 口腔保健管理에 對한 考家. 綜合醫學, Vol. 11, No. 5, p. 56-67, 1966.
- 14) 金秀男: 韓國 兒童의 齒齲炎에 關한 統計學的 考察. 最新醫學, 11: 991, 1968.
- 15) 裡里市 齒科醫師會: 國民學校 兒童의 口腔衛生 實態. 月刊齒界, 10月號. 1967.
- 16) 金顯圭: 江原道 山岳地方 兒童의 齒牙齲蝕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Vol. 11, No. 1, 1973.
- 17) 梁圭鎬: 慶南 海岸地區 兒童의 def, DMF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Vol. 11, No. 1, 1973.
- 18) 李漢鳳: 延平中學生의 口腔保健 實態 調查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Vol. 13, No. 2, 1975.
- 19) 金鍾培: 齒周組織疾患의 豫防과 管理. 大韓齒科醫師協會誌, 8: 495, 1970.
- 20) 崔翔默: 齒周組織疾患의 統計的 觀察. 齒科會報, 5: 31, 1963.
- 21) 任東祐, 玄天燮, 金鍾培, 金周煥: 農村住民과 國民學校 教師의 口腔保健管理 實態 調查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9: 617, 1971.
- 22) 金鍾培: 韓國人의 齒周組織疾患 有病率에 關한 調查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2: 245, 1974.
- 23) 金周煥, 崔有鎭, 劉光熙, 金晃中: 集團을 對象으로 한 口腔保健教育의 效果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8: 371, 1970.
- 24) 朴光振: 齒牙齲蝕活性에 對한 toothbrushing 效果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8: 371, 1970.
- 25) Glickman: Preventive periodontics. Improving dental practice through preventive measures, The C. V. Mosby Co., 1966.

■■■移 轉 盛 業 中■■■

서울시장인정 제39호

조양치과기공소

대표 金 幸 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11

전화 (96) 6 8 3 4

UNIT, CHAIR, AIRTURBINE

各種 齒科器材一切 製作·賣買·修理

技 士 유 재 용
 柳 在 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6

사무실 (28) 3 3 5 6